

합무라비 법전에는 도둑질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둑질’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이므로 도둑질이 들통나거나 붙잡히면 상황에 맞는 배상법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종류에 따라 2배, 4배, 5배 등으로 갚게 했으며 도둑맞은 이후에 본 손해까지 셈하여 배상하게 했습니다(출 22:1, 4).

오늘날 형법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가해자로 하여금 도둑맞은 자의 상실감과 손해 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게 만듭니다. 도둑질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대가를 모두 치르게 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도둑질한 자가 죄를 자백하고 참회한다면, 도둑질한 것에 20% 더해서 배상하게 하여 이들에게도 만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죄의 자백은 참회의 첫걸음이며, 실질적인 배상과 진심어린 용서가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8계명을 지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딤후 6:10). 자족할 줄 모르는 탐심은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채우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굴은 평생 하나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도록”(잠 30:7-9) 구했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죄를 지을까 두려워한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십시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살후 3:10). 이름만 걸어놓고 이익을 얻는 자리는 과연 하나님 법에 적법할까요? 세상의 가치관, 옛 삶의 양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엡 4:28)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모든 물질과 소유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빌 4:6-7).

나의 소망과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①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 ②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있습니까?